

제주 잠녀문화 세계화 추진된다

세계섬학회, 내년 학회 때 '잠녀주간' 설정
한일 공동 캠프 운영...유네스코 등재 시동

등록 : 2007년 12월 10일 (월) 17:51:32
최종수정 : 2007년 12월 10일 (월) 17:51:32

고미 기자 ✉ popmee@jemin.com



▲ 세계섬학회가 제주잠녀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올해 탐라문화제 때 열린 해녀축제.

제주 잠녀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다.

제주 잠녀의 보존·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잠녀주간'을 설정하고 세계 눈높이에 맞춘 '잠녀 축제'를 진행하는 등 제주 잠녀의 세계화를 위한 신선한 시도로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섬학회를 중심으로 한 이들 작업은 단순히 '잠녀의 가치를 재평가하자'는 울림을 넘어선 구체적인 움직임이다.

내년 8월28~31일을 잠녀주간으로 정해, 세계섬학술대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동시에 제주잠녀 보존을 위한 국내·외적 관심을 유도한다는 게 기본 골자.

이를 바탕으로 제주 잠녀를 재정립, 궁극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내년 시도되는 잠녀주간은 그 첫 걸음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도내에서 잠녀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는 구좌읍 하도리와 전통 잠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우도 잠녀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도된다.

그 중 하나가 제주 잠녀와 일본 아마가 참여하는 피스아일랜드올림픽, 올림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잠녀의 '물질'능력에 대한 경이로움이 그 배경에 깔려있다.

'피스아일랜드올림픽-제주잠녀와 일본 아마의 해후'라는 가제가 달린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세계 해녀 문화축제로서 의미가 있다. 이 축제에는 특히 한일 공동 '해녀모녀캠프'를 운영,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취지를 살리게 된다.

이들 과정은 제주 잠녀 만이 아니라 '사라져 가는 직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일본 아마와 공동 작업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하는 등 보다 높은 가능성에 기대를 건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제주잠녀'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 지원 부서를 마련하고 지방문화재와 국가문화재 지정 등을 계속해 추진, 2010년이나 2011년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및 지정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세계섬학회 측의 복안이다.

이와 연계해 잠녀대학과 전문병원, 전문연구소를 포함한 세계잠녀문화 공원을 구축하고 잠녀문화 보존과 계승,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작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고창훈 제주대 교수는 "잠녀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며 "피스아일랜드올림픽 등의 의견은 잠녀문화를 체험한 외국인들이 제안했을 정도로 그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